제7강, 해체의 뒤안길 Ⅰ-1

－동서 비교의 □다름□에서 □사유의 유사성□으로

(1교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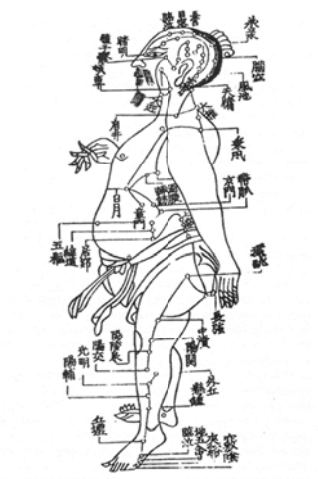

Figure 1. Hua Shou, *Shisijing fahui*, 1341. Fujikawa Collection, Kyoto University Library.

Figure 2. Vesilius, *Fabrica*, 1543, Wellcome Institute, London.

1. □보는□ 것과 □보이는□ 것의 차이 ☞

활수　　바살리우스

우리는 후대의 중국과 유럽의 의학 작품에 나오는 그림--원대(元代)의 의자 활수(滑壽)의 ?十四經發揮?(그림 1)과 바살리우스(Andreas Vasalius)의 ?파브리카 *Fabrica*?(그림 2)--을 통해 이러한 불일치의 유산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. 나란히 놓고 보면 두 그림은 은연중에 각기 허점을 드러낸다. 우리는 활수의 그림에서는 바살리우스가 그린 인간에게서 보이는 정교하게 구분이 되는 근육을 찾아볼 수 없다. 그리고 사실 전통 중국 의학에는 □근육□(muscle) 개념에 꼭 상응하는 말조차 없다. 근육 조직(musculature)에 매혹된 것은 독특한 서양적 현상이다. 이와 반대로 바살리우스의 인체관에서는 침을 놓는데 필요한 지점들에 대한 정확한 도표화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--이것은 필연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중국인의 눈으로 보아도 이것들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17-8세기에 유럽인들이 중국 의학 문헌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마주친 인체 묘사는 상상의 땅--한 영국 의사는 이를 □환상□이라 보았고, 또 다른 사람은 □엉터리□라고 생각했다--에 대한 설명과 다를 바가 없었다. 중국인의 □해부학□(anatomy)은 갈레노스나 바살리우스가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.

－시게히사 쿠리야마의 ?고전 중국 의학에서 시각적 인식? 중에서

－□같음□과 □다름□을 왜 말하는가: 서양-되기, 나-되기, 우리-되기

－두 그림을 중첩시킨다면: 나누기에서 겹치기로

(2교시)

2. 한 가지 사례

"옛날 어떤 새가 날아와 노(魯) 나라의 교외에 머물렀다. 왕은 매우 기뻐서 소, 돼지, 양을 갖추어 대접하고, 구소(九韶)의 음악을 연주하여 새를 즐겁게 해 주었다. 그러나 새는 오히려 걱정하고 슬퍼하여 눈이 어지러워져 전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."

?莊子? ?達生?의 한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. 타자를 동일화하여 내부화하는 것, 그럼으로써 타자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타자를 파괴하는 행위 외의 것이 아니다. 내부화를 통한 하나-되기는 남을 나에게 복속시키는 나-되기이다. 거기에는 남-되기가 없다. 평화와 하나-됨을 이야기하지만, 정복과 지배가 있을 뿐이다. 타자성, 외부성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, 이것이 타자의 사유, 바깥의 사유로서의 현대 사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...

일자와 일의성을 구분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. 일자는 타자들을 그 안에 용해시켜 타자성을 해소시키는 동일성이다. 이 점에서 파르메니데스의 일자가 해체된 것은 다와 운동의 구제 이전에 타자성의 구제라고도 할 수 있다. 일의성은 그 반대이다. 그것은 타자성, 바깥, 차이화를 구제하기 위한 사유이다. 일의성이라는 평등 위에서 무수한 차이들과 바깥들이 성립하기 때문이다. 바디우가 들뢰즈 비판에서 착각한 것은 일자와 일의성을 같은 것으로 본 점이다.

장자의 제동(齊同)도 마찬가지이다. 제동은 일자의 사유가 아니라 일의성의 사유이다. 만물의 有는 無의 일의성, 無의 평등 위에서 성립한다. 미꾸라지에게는 요통이 없다. 짐승들은 미인을 보고 도망간다. 그것은 철저하게 상대적인 세계관이다. 제동은 그 상대적인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일의성이다.

—이정우의 □[철학단상 1] 일자, 일의성, 제동(齊同)□에서

*** 인류학의 예**

1) 무엇이 이들을 지배하는가?

2) 어떻게 사는가?

3. **도가의 해체적 사유**

—해체(de-construction)를 위한 구성(construction)의 전제: 유가(仁義)에 대한 도가(齊物)

—有가 나타남이라면 無는 숨음이다 → 백지 위에 그림 그리기(이중성), 발자국 주변의 無(근거

아닌 근거)

(3교시)

－**道의 이중성(生/死)과 사실성(구체적 사실성)**: 범주론적 사실(선택적, 획일적 방식)이 아닌 실존론적 사실(사물을 있는 그대로 봄)⇒□자연□, □무위□와 연결

*** 무위의 개념**

①제왕과 신하의 역학관계를 표시(제왕의 행동방식-법가적 개념)

②양신(養神)-생명력의 근원. 내 몸을 단련하고 생명력을 얻는다.

③장자, 無爲而治者(무위이치자)-제왕의 덕에 의해 말하지 않아도 신하들이 **교화(敎化)**가 될 것이다.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. (덕화의 무위. 유가적 무위)

→ 위진시대, ③에 가까운 개념